

5·18 광주에서 ‘대선 민심’ 잡기

민주 대권주자들 광주로 ... 광주로
이낙연 ‘고향의 힘’으로 반등 노력
정세균 “제2의 DJ 리더십 필요”
이재명 “정치·사회적 고향은 광주”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전후 광주를 찾아 표발을 다진다. 민주당 내 호남이 차지하는 위상이 높고, 권리당원 비율도 커 ‘호남의 마음’을 얻기 위한 대권 잠룡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할 전망이다.

호남출신 이낙연 전 대표는 ‘고향의 힘’을 모아 지지율 반등 모멘텀 마련에 나서고, 역시 호남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도 호남 지지층 결집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정치·사회적 고향은 광주”라며 호남 텃밭을 누릴 계획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13일~16일까지 나흘간 광주에 머문다. 이 전 대표는 13일 한국노총 간담회에 참석 한 후 조선대에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했다. 이어 14일엔 오전 중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묘비를 닦은 뒤 말바우시장을 찾아 오찬을 하고 오후에는 아시아문화전당 ACT센터,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광주 트라우마센터 등을 방문한다.

이어 15일엔 남광주시장에서 조찬을 하고 오전에 묘비 닦기를 이어간다. 오후에는 전북 전주와 전남 목포를 찾아 지역민을 만난 뒤 광주로 돌아온다. 16일은 묘비 닦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낙연의 광주 선언’을 밝힐 방침이다. 영광 출신인 이 전 대표는 광주에서 진정성 있는 행보로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

하며 반등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호남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13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호남 공략’을 시작했다. 정 전 총리는 “IMF 위기극복을 이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있었듯이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된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며 “김대중 대통령과 같은 제2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오섭(북구갑), 이용빈(광산구갑), 김희재(여수을), 신정훈(나주하순) 의원 등 정 전 총리 지지의사를 표명한 정치인이 참석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주말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위기극복·정권재창출을 위한 대화도 진행한다. 정 전 총리는 오는 15일까지 전북 서·군을 순회한 뒤 16~18일 광주·전남 일정을 소화한다. 정 전 총리 측은 호남에서 이 전 대표 지지율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를 이루고 전국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오는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 경기도와 전북도 자동차 대체 인증부품 활성화 협약식, 광주 5개 구청과의 기본소득 간담회 등 도지사로서 공식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5·18 묘역 참배 등 별도의 개인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지사는 대중적 지지도와 이를 바탕으로 한 확장성 및 본선 경쟁력을 내세워 호남의 ‘전략적 선택’을 호소한다는 전략이다.

이 지사는 “젊은 시절 5·18 광주항쟁을 겪으며 광주는 정치·사회적 어머니라는 다짐을 했다”며 호남 민심을 두드리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전 사장에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 ... 28일 주총서 선임

한국전력공사 신임 사장에 정승일(56·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선임된다.

한전은 오는 28일 나주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정승일 전 차관을 사장으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임기는 3년(1년 단위 연임 가능)이며, 지난해 연봉은 2억6500만원이었다.

한전 사장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 추천하면 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과 한전 이사회 및 주총을 거쳐 산업부 장관 제정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정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경성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3회에 합격, 1990년



동력자원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산업부 반도체전과과장, 에너지산업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에너지자원실장 등 산업·통상·자원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2018년에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을 지냈다.

한전은 이날 주총에서 박현규 전 한전 상생발전본부장을 상임이사(부사장)로, 박효성 전 의무부 뉴욕총영사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으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상정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5·18 시리즈 - 다양한 콘텐츠 만들자	▶6면
복스 - 수치, 인간과 괴물의 마음	▶14·15면
류현진 ‘느림의 미학’ 시즌 3승	▶18면



전국 시도교육감 5·18 묘지 참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제41주년을 맞아 5.18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전남, 코로나 5차 대유행 오나

광주 8명 확진·전남 나이트클럽 종사자 등 38명 대폭발

주말·휴일 대유행의 분수령 ... 외출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해야

광주·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5차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과 휴일이 대유행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외출자제 등 방역수칙 준수를 호소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대규모 감염 소식에도 도심 변화가와 술집 등에 인파가 몰리는 등 일부 사·도민의 방역의식이 느슨해지면서 방역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상무지구 유흥업소 관련 2명, 가야차 광주공장 관련 3명, 전남 확진자 관련 1명,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2명 등 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에서는 지난 10일 24명, 11일 22명, 12일 23명 등 사흘 연속 20명대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광주시는 특히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유흥업소 발 확진자가 이어짐에 따라 유흥업소 종사자 전

원에 대해 집단 검사 행정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현재까지 102명이 검사를 받아 현재 80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가야차 광주공장 관련 확진자가 가족 등까지 7명으로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현장 위험도 평가를 하고 있다. 확진자가 다녀간 광주 서구 모 교회도 594명을 검사하고 있다.

광주시는 최근 확산세를 고려해 오는 15일 민관 공동 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후 하루 발생건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전남은 이날 오후 5시 30분 현재 38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1233명이다. 지역별로는 순천 16명, 여수 9명, 광양 9명, 나주 1명, 담양 1명, 화순 1명, 강진 1명 등이다.

특히 순천 나이트클럽 종사자와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전수검사가 이어지면서 확진자도 잇따르

고 있다. 이날 오전 11시 현재 순천 나이트클럽 관련 누적 확진자는 30명에 이르며, 지역별 거주지는 순천 18명·광양 9명·여수 1명·곡성 1명 등으로 순천 인근 시군에까지 퍼진 상태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지난달 22일 이후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이용자가 200~300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무늬(QR코드)로 확인된 최근 사흘간 이용자는 746명으로 이 중 26명에게서 양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는 음성이다. 방역당국은 이 업소를 즉각 폐쇄하고 소독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을 상대로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이후 이용객 전체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시범가편안을 적용하던 순천시와 광양시는 지역사회 내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질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앞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시설 5종과 유흥업 등 집합이 금지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 사퇴 ... 靑 “청문절차 완료 희망”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했다.

<관련기사 3면>

박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짐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부인의 고가 도자기 불법 반입·판매 의혹을 언급하면서 “그런 논란이 공직 후보자로서의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모두 저의 불찰이며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

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주영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그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3000여점의 도자기를 다량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를 강해지자 박 후보자가 임명관자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한다고 판단, 자진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박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관련해

“이를 계기로 국회 청문절차가 신속하게 완료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논란에 직면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노동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사실상 임명 수순을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론, 국회·여당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청문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국무총리 이하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